

심리치료, 사회 참여와 접목하며 정착 중

좌선을 하고 명상에 잠긴 서양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큼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신교를 국교처럼 여겨지는 미국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현재 미국에는 80여 한국 사찰(조계종 기준)이 분포돼 있다. 미국인을 포함한 250만 이상의 인구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다.

미국에서의 불교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고학력 엘리트 집단에겐 인기를 끌었다.

미국인들은 곳곳에서 단체 활동을 통해 불교 명상을 하는 등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뉴욕 원각사에는 미국인 스



미국 사회에 한국 불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미 유니온 신학대에서 간화선 실참에 참가한 미국인들

80여 사찰 미국 내 분포해 있어 명상·재가 중심이 미국불교 특색 물질문명 한계에 점점 관심 커져

님들이 직접 미국인과 한인 2세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불교는 특히 심리치료 등 의학 분야의 접목에서도 활발하다. 실제로 티키타나 스님은 미국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미국식 불법(佛法)과 유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삼보의 하나인 스님들 중심이라면 미국은 재가자 중심의 활동이 뚜렷하다. 재가자 중심의 활동과 민

주주의와 사회 참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이 반영돼 미국불교는 자연스럽게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화됐다.

개신교 종교학자인 폴 니터 교수도 9월 16일 유니온 신학대에서 열린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과의 종교간 평화대화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사회참여를 미루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에서의 불교인구의 증가는 급속한 사회 발전에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기독교

의 한계와 연결된다. 불교가 참선과 명상을 강조하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물질문명의 한계를 느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2007년 363개까지 증가했던 뉴욕 한인교회는 이후 점차 감소 2009년 1월 기준 312개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교회 감소의 원인을 잇따른 내분과 추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빠른 변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금강중매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간화선과 같은 한국

불교명상은 미국인들의 이런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8월 9일 열린 제33차 총무원회의에서 ‘미국 동부 해외특례교구’ 설립을 승인했다. 또 초대 교구장으로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을 9월 27일에 선출자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스님 개인의 원력에 의지했던 해외 포교가 중단 차원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장기적 안목 통한 지원 필요”

美 콜럼비아대 한국불교학 연구자 김수정 씨

달라진 한국 불교 위상 체감 체계적 전략 부족은 아쉬움

“장기적 안목의 지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 신자가 대부분 이민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김수정(33) 씨는 2007년 한국에서 불교 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콜럼비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 논문 제출만 남겨놓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불교를 가르치

는 교수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국불교를 가르칠 계획이다.

콜럼비아 석사과정 당시 김 씨는 한국 불교를 공부하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함께 공부를 하던 2명의 학생 중 한 명은 전공을 바꿨고, 다른 한명은 UCLA 박사과정에서 원불교를 배우고 있다. 김수정 씨는 “내년부터 콜럼비아 대학에서 한국불교 전공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 한국불교 전공학생들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한국학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뉴욕 조계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과 미국 스님인 명행 스님에게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기도 한다. 로버

트 셔먼 교수의 ‘인도티벳불교’ 수업 조교를 하던 2010년에는 명행 스님을 초청해 학생들과 토론을 갖기도 했다.

김 씨는 학생 시절 서울 조계사에서 자원 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무지함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최근 한국불교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김수정 씨의 눈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

“세계화에 대한 열의는 높는데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며 대학 중심의 불교와 발전과 사찰 중심의 한국 불교 포교의 두 가지 작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수정 씨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미국 포교를 위해 뉴욕 조계사 등 사찰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스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영어나 한국어 서적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교수직 설치 지원과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넓은 시야를 갖고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확립시킬 것인지를 조망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더 빨리 한국불교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 김수정 씨

았다.

미국 기독교 신앙의 위기

미국은 이민 문화가 개방된 이후 세계종교가 들어와 종교백화점이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등 타종교와 상호 이해 속에서 종교공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류 미국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친근하게 접근되고 있는 종교는 당연히 불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불교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많은 사찰들이 설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불교가 훨씬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어보고, 필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불교의 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종교관련 통계 전문가인 ‘조지버나’가 ‘미래예측’이란 책을 최근에 발간했다. 이 책에 의하면 성경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46%에서 38%로 줄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24%에서 37%로 늘었다. 그리고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과거 74%에서 66%로 줄었다.

미국 복음주의협회가 정의하는 ‘진정한 신자’는 미국인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필자가 주지로 있는 정혜사는 3년 전 미국 백인들이 운영하던 교회를 구입해 이전한 도량이다. 이처럼 이곳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타 민족 불교인들도 교회를 사들여 절로 만든 사례가 많다. 그만큼 교회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반증이다.

한국불교는 교민 종교 인구 중 7%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불교세가 아주 미약해 사찰 유지도 힘겨울 정도이다. 현지 미국인들을 위한 조직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영화 제작자들이었다.

영화산업의 본고장이고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진 이 지역에 위치한 할리우드 영화인들, 특히 유명한 배우들이 달라이라마를 직접 친견하고 불자가 되어 그분을 초칭해 많은 행사를 열었다.

그 후 달라이라마와 티베트불교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돼 일반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때때, 티키타나 출신 티키타나가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플럼 빌리지(Plum Village)’ 수행센터를 만들고 활동하던 중 달라이라마에 이어서 다시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등장하면서 그의 업적과 종교적 수행력이 미국에 퍼졌다.

티키타나는 달라이라마 만큼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티키타나는 2000년부터 미국 동부 뉴욕지역과 서부지역 샌디에고(SA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지역에 ‘디어 파크(Deer Park)’ 수행도량을 건립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샌디에고 수행장은 필자가 개원 당시부터 수차례 방문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수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았다. 그 동안 많은 스님들이 포교에 열정을 갖고 헌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 비해 한국 불교 상황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메가톤급 전도 폭탄에 불교는 파죽지세가 되어 이미 한국 교민사회는 기독교화가 돼버렸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도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교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현지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포교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지 사찰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스님들의 영 어 구사 문제 등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종단과 연계해서 연구해야 할 중 대 과제라고 생각 한다.



석타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 정혜사 주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연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명예증정	청봉 석정산	명진 석범운					
원로회회장 석충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무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범일	기획원장 석범상	호계원장 석철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교무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원장 석운오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석범오	부원장 김원열법사	1국장 석대덕	2국장 석해인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증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님에 한함)
- ※ 범용번호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법패, 육효, 학인모집 :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